

【연구논문】

## 쇼펜의 『각성』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선주

(서울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기존의 사회이념들이 새로이 부각되는 가치관들에 의해 도전받고 대체되는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는, “사회질서도 자연질서의 하나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남성우위의 성 정체성을 고정시키고자 했던 다윈(Charles Darwin)이나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진화론에 반발하는 여권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했다. 남성의 지적, 정신적인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으로 여성들만의 고유한 미덕 즉, 다정함, 이타주의, 모성본능, 신체적 아름다움이 담보된다는 기존의 견해는 이 시기에 이르러 가부장적 사회를 필요에 의한 하나의 역사적 구성체로 보려는 새로운 시각들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정의 천사’라는 이상화된 모성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도 보편화되고 장려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남북전쟁 이후 미증유의 산업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가던 신생국이라는 당시 미국사회가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sup>1)</sup> 건국 이후 강력

---

1) 남북전쟁 이후, 증기선과 철도의 보급 등으로 촉진된 미국의 산업화는 산업혁명의 근원지인 영국이나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1870년에 3,850만 명이던 인구가 1920년 1억 2,30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미국사회의 규모가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력의 공급이 절실했음을 가늠하게 한다. 1816년 토마스 제퍼슨(Thomas

한 청교도 윤리의 영향 아래 신생국의 일꾼을 길러내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삶을 강요받아 왔던 미국의 여성들은 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희생적 현실을 탈피하여 주체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팔목할만한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사회는 중산층 여성들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가열된 시기이기도 했다. 서부로의 팽창, 산업혁명, 각종 사회 개혁과 남북전쟁은 한편으로는 미국 중산층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정의 천사가 될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덕을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운영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sup>2)</sup>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19세기 말 미국 여성들의 이러한 존재론적 개인주의는 대륙의 계몽주의라는 오랜 전통과 크게 맞닿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풀잎』(*Leaves of Grass*)에서 주체적이고 충만한 정신적 삶을 향유할 것을 강조한 시인 휘트먼(Walt Whitman)이나 내면적 자아를 중요시했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미국적 초월주의 전통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

Jefferson)의 한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유럽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정치인들의 우려 또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노동력의 필요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강규한, 「산업화의 진전과 자연훼손」,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84-85.

- 2) 이 시기 미국사회에서는 중산층 여성들의 교육을 ‘금단의 열매’로 규정하거나 단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만 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대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주에서 처음으로 남녀공학의 대학이 설립되는 등 고등교육을 통해 공적인 영역을 지향하려는 미국 여성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Theresa Defrancis, “Women-Writing-Women: Three American Responses to the Woman Question,” Diss. Rhode Island U (2005), 6-29.
- 3) 에머슨이나 소로와 같은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개인의 직관’을 통한 진정한 ‘자립’ (self-reliance)이었다. 이러한 자립이야말로 개인 내면의 우주적 정령(Over-Soul)이 내린 명령에의 엄정한 준수, 내면에 간직한 신성의 확인이었으며, 곧 보편적인 도덕률로 나아가는 길이라 여겨졌다. 19세기에 이르러 주체적 자아를 추구하는 미국 신여성들의 등장도 이러한 초월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미국 여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던 것은 남성중심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뿐 만 아니라 결혼이 거의 유일한 생존전략이었던 경제적 현실이었다.<sup>4)</sup> 경제적 능력이 없던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결혼이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지만 점차 노동을 통해 독립하려는 이른바 신여성들이 출현하면서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여성 역할의 변화와 의복의 자유, 여행의 자유,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향유되기 시작했다.<sup>5)</sup> 다만 과도기적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당시 미국사회의 여성들은 여전히 경직되고 위선적인 일면을 간직한 사회체제 안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삶과 사고를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각성』(*The Awakening*)의 여주인공 에드나 폰텔리에(*Edna Pontellier*)도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여성의 재산권이나 참정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등 여성 개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sup>6)</sup>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에드나는 무의식중에 억눌렸던 자아를 표현하고, 강요받았던 관습을 차례로 거부해 나가게 된다. 에드나를 결국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에서 고민하던 존재의 문제 즉 매 순간의 결의와 죽음의 극복을 통해 살아가는 영웅적, 본래적 실존의 문제이다.<sup>7)</sup> 극작가인

4) 케이트 쇼펜(*Kate Chopin*)이 『각성』(*The Awakening*)에서 새로운 미국 여성상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작가 자신이 당시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루이지애나 주에서 성장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 루이지애나 주는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다. *Ibid.*, 47.

5) R. M. Sentilles, “New Girls for the New (Twentieth) Century Melissa R. Klapper, Jewish Girls Coming of Age in America, 1860-1920,” *Journal of Women’s History* 21 (2009), 196-204.

6)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 발의된 헌법수정안이 2년에 걸쳐 상원을 통과하고 각 주의 비준을 받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장될 수 있었다.

7) Mason Olds, “Being, Courage, and Love,” *Humanist* 67 (2007), 32.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의 연극 『코뿔소』(*Rhinoceros*)에서, 한 작은 마을에 느닷없이 나타난 코뿔소로 인해 마을주민 모두가 무디고 순응적인 코뿔소로 변모해버려도 끝까지 코뿔소로 변하는 것을 거부한 베랑제(Berenger)처럼, 에드나는 19세기 미국사회가 부과하는 여성의 동조화된 정신적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거부해 나간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에드나를 지속적인 내적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체적 자아의 문제를, 19세기 미국사회의 모순 속에서 한 여성의 내면에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에로스(eros)와 타나토스(thanatos)의 역동적인 양상들 속에서 읽어내 보고자 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하면 삶의 본능인 에로스는 자기보존과 통합, 종족보존의 본능에까지 확대되는 일체의 생명지향적인 노력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신의 삶을 열렬히 탐구하게 하고 생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자기애(self-love)는 가장 근원적 형태의 에로스 혹은 삶 충동(life instinct)에 해당한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Narcissus) 이야기처럼 지나친 자기애는 때로 자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없는 건설적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삶의 지속을 갈망함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론적인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에로스의 대척점에서 있는 타나토스는 파괴와 공격적 성향을 통해 개인과 집단을 해체하고 소멸을 지향해 가는 죽음의 본능이다. 타나토스는 삶을 종식시키고 무기물로 환원하려는 충동이며,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타나토스의 본능과 생명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에로스의 본능이 융합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의 존재가 지니는 모순은 이러한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외부세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끊임없이 생성되는 갈등을 완충해 가기 위한 각자의 기제 속에서 비롯되어진다. 바그너(Richard Wagner)의 악극인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에서 트리스탄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죽음’(Liebestod)처럼, 임계치에 도달한 에로스가 때로는 죽음이라는 역설적

쾌락으로 연계되기도 하는데 이는 타나토스의 또 다른 이름이 에로스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각성』의 여주인공인 에드나도 바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본질적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장애물들을 뛰어 넘는 통과의례로 물리적 죽음을 선택하게 된 인물이다. 에드나는 소설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에로스 와 타나토스를 구현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적 성장을 성취한다.<sup>8)</sup>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의 엠마 보바리(Emma Bovary)와 마찬가지로 절박하고 대담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에드나의 실존적 선택을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그녀를 통해 표출된 에로스 와 타나토스의 본능을 살펴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우선 에드나를 통해 구현된 에로스 와 타나토스의 다양한 발현양상을 살펴본 다음 그것에 근거하여 소설의 결말인 에드나의 자살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는 곧 주인공인 에드나가 각성에 이르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며, 에로스 와 타나토스의 본능이 각성의 최종 목적지인 주체적 자아를 성취해 내는데 각각 어떤 수단과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 I

에드나의 경우 에로스적인 본능은 어린 시절의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 환상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에드나는 원래 “남몰래 낭만적 환상을 비밀리에 품고 사는 독립적인”<sup>9)</sup> 아이였으나 그 환상을 포기한 시

8) 현대의 독자들은 욕망, 억압, 동기화, 자의식 등 기본적인 정신분석학 모형들을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1899년 쇼펜이 『각성』을 처음 발간했을 당시에는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은 미국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작품 내에서도 에드나 자신의 욕망이나 반응 동기 등은 스스로에게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종종 엿볼 수 있다. Sean Heuston, “Chopin’s *The Awakening*,” *Explicator* 64 (2006), 225.

점에서 레온스 폰텔리에(Léonce Pontellier)와의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현실과 직면하게 된 에드나는 열정으로 채색되지 않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으나(19) 그랜드 아일랜드(Grand Isle)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동안 자신의 어린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문득 깨어난다. 기병대 장교, 약혼자가 있는 젊은 신사, 잘 생긴 연극배우에 대해 비밀스럽게 품었던 소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녀는 비슷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다른 귀부인들과는 달리 유난히 민감한 감수성과 심리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소설 전반에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이야말로 에드나에게 있어 에로스의 본능을 발현시키게 하는 강한 촉매가 된다. 이미 십대 시절부터 그녀는 현실세계와 자기 내면세계의 괴리를 인식하였으며 내면과 현실의 궤를 달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폰텔리에 부인은 속내를 내비치는 편이 아니었다.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그녀의 성격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은밀하게 살았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중적인 삶을 본능적으로 터득했다. 외적으로는 순응하는 삶을, 내적으로는 의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Mrs. Pontellier was not a woman given to confidences, a characteristic hitherto contrary to her nature. Even as a child she had lived her own small life all within herself. At a very early period she had apprehended instinctively the dual life - that outward existence which conforms, the inward life which questions. (14)

---

9) Kate Chopin,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17. 이후 이 작품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 쪽수만 표기함.

특히 에드나가 로버트 레브룬(Robert Lebrun)이나 아델 라티놀(Adèle Ratignolle), 라이즈 양(Mademoiselle Reisz)을 만나기 이전에도, 겉으로 드러난 행복한 결혼 생활 이면으로 이미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남들에게 없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임을 각인시켜 주고 있다.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의식에서 생겨난 듯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희미한 고통마저 느껴졌다. 그 감정은 영혼의 여름날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그림자와도, 안개와도 같았다. 낮설고 생소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지금 그녀는 거기에 앉아 남편을 비난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그녀를 인도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것이었다.

An indescribable oppression, which seemed to generate in some unfamiliar part of her consciousness, filled her whole being with a vague anguish. It was like a shadow, like a mist passing across her soul's summer day. It was strange and unfamiliar; it was a mood. She did not sit there inwardly upbraiding her husband, lamenting at Fate, which had directed her footsteps to the path which they had taken. She was just having a good cry all to herself. (8)

일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는 특히, 에드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도록 함으로써 각성에 이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끈 인물이 여성인 라티놀 부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라티놀 부인의 관능적인 몸짓에 의해 에드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결혼으로 인해 포기했던 독립성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sup>10)</sup> 쇼

10)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적인 해석에 따르면, 에드나가 라티놀 부인에게 그녀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내재된 갈망은, 생략과 함축이 전제된 ‘기호학’의 세계가 아니라 언어라는 명백한 ‘상징’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다. Rosemary F. Franklin, “Chopin’s *The Awakening*: A Semiotic Novel,” *PsyArt*

윌터는 이 소설이 19세기 여성의 동성 문화와 그에 기초한 여성 문학의 전통으로부터 20세기 이성애에 근거한 근대 문학의 전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에드나의 각성의 계기가 육체적인 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성이 일어났던 장소인 그랜드 아일랜드는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들의 오아시스였고, 에드나의 각성은 19세기 여성 문학 전통처럼 남성이 아닌 여성, 즉 라티놀 부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매우 섬세한 심미적 감수성을 통해 라티놀 부인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을 계기로 에드나는 숨어있던 육체적 본능과 관능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자기 발견을 향한 긴 여행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14).

라티놀 부인에 대한 에드나의 호감에 대해 로즈메리 프랭클린(Rosemary Franklin)은 ‘모친부재’(motherlessness) 혹은 ‘대리모’(mother surrogate)라는 관점으로 이해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1)</sup> 아프로디테와 데메테르 여신의 모습에 비유되는 라티놀 부인은 시각적으로 전형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나마 에드나의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여주는 인물 중 하나이다. 즉 에드나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이 대리모로서의 역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잠재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라티놀 부인은 에드나의 각성을 이끌어주는 모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도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 에드나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자 라티놀 부인을 방문하여 그 삶의 방식을 재차 목도한 후 위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낭만적 환상과 더불어 잃어버린 모친에 대한 에드나의 에로스적 탐색마저 거둬 죄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사회의 전형적인 상류부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라티놀 부인의 간헐진

---

(2011), 4.

11) Ibid.

삶은 에드나로 하여금 오히려 연민을 가지도록 만들 뿐이다.

라이즈 양 역시 라티놀 부인과 함께 에드나에게 대리모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인물이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에드나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녀 안에 내재해 있던 열정과 삶에 대한 환희를 불러 일으켰다.<sup>12)</sup> 라이즈 양의 피아노 연주를 처음 듣는 순간 에드나가 느낀 해방감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라이즈 양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폰텔리에 부인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존재가 불변의 진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략) 고독의 그림도, 희망, 갈망, 혹은 절망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열정 그 자체가 그녀의 영혼 속에서 깨어나 마치 파도가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덮치듯 그녀를 압도하며 뒤흔들었다. 에드나는 몸을 떨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The very first chords which Mademoiselle Reisz struck upon the piano sent a keen tremor down Mrs. Pontellier's spinal column. It was not the first time she had heard an artist at the piano. Perhaps it was the first time she was ready, perhaps the first time her being was tempered to take an impress of the abiding truth. (...) She saw no pictures of solitude, of hope, of longing, or of despair. But the very passions themselves were aroused within her soul, swaying it, lashing it, as the waves daily beat upon her splendid body. She trembled, she was choking, and the tears blinded her. (26)

12) 에드나가 라티놀 부인과 라이즈 양 등의 다양한 여성인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점은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의 성장 스토리와 접점을 이루기도 한다. Sharmita Lahiri, "Not a vanquished rebel but a successful explorer of newer realms: A study of Edna Pontellier in Chopin's *The Awakening*," *The IPU Journal of English Studies* 6 (2011), 65.

라이즈 양의 음악에 영감을 얻고 고무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수영을 하게 된다. 이는 각성 후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낸 최초의 경험이었다. 수영이 성공한 후에 느낀 강렬한 환희와 만족감은 그녀의 각성에 이전과는 다른 추진력을 실어주게 된다. 에드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부분적으로나마 채워 나가면서 이제 더욱 도전적이고 과감한 여성이 될 수 있었다. 라이즈 양의 강렬한 피아노 선율을 통해 각성되기 시작한 에드나의 내면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루이지애나 크레올 사회의 제한적 관습과 시시각각 부딪치면서 더 깊은 갈등을 키워 나가게 된다.

환희의 감정이 에드나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마치 어떤 강렬한 힘이 에드나의 영혼을 휘감으며 마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 했다. 에드나는 점점 더 대담하고 무모해졌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했다. 여성들 중 어느 누구도 차마 가볼 용기를 내지 못한 거리까지 멀리 헤엄쳐서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A feeling of exultation overtook her, as if some power of significant import had been given her soul. She grew daring and reckless, overestimating her strength. She wanted to swim far out, where no woman had swum before. (27)

라이즈 양은 라티놀 부인과 함께 결핍되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에드나에게 베풀어주는 긍정적 인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녀 역시 에드나에게 완전한 에로스적 욕망의 구현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각성을 이룬 후에도 라이즈 양이 영위하는 고립되고 배척받는 삶, 열정이 사라져 버린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에드나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랜드 아일랜드에서 기도서와 묵주를 든 채로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마치 대리회복이라도 하려는 듯이 한 쌍의 젊은 연인들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이름 모를 ‘레이디 인 블랙’ 처럼, 에드나와 로버트의 주위를 맴돌며 이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은연중 즐기는 듯한<sup>13)</sup> 라이즈 양의 관음증적, 도피적 삶은 에드나의 에로스적 본능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양식이 될 수 없다.

로버트는 라티놀 부인이나 라이즈 양과는 달리 성인이 된 에드나로 하여금 이성을 향한 강렬한 에로스적 욕망의 첫 두근거림을 선사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각성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인물이다. 퍼시벌 폴라드(Percival Pollard) 역시 로버트를 에드나의 각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뽑고 있다.<sup>14)</sup> 폴라드에 의하면, 로버트를 만나기 이전의 에드나는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녀의 진정한 육체적 자아와 영혼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로버트와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에드나의 육체와 영혼의 각성이 본격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로버트가 바다로 수영하러 갈 것을 간청했을 때 상반된 층동 속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일을 에드나가 반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로버트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에드나는 한 개인으로서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더불어 자신의 내면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바깥 세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14). 수잔 볼켄펠트(Suzanne Wolkenfeld)는 에드나의 각성에 기여하는 로버트의 역할을 동화 속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우는 왕자와 병치시키며, 에드나가 동화에서처럼 두 연인의 영원한 결합을 꿈꾼 것이었다고 해석한다.<sup>15)</sup> 셰니에(Cheniere) 섬에서 현기증을 느껴 잠시 수면을 취한 에드나에게 그녀가 백 년 동안의 긴 잠에 빠져있는 동안 자신이 곁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로버트의 말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37).

13) Christa Havener, “The “Lady in Black” in Chopin’s *The Awakening*,” *Explicator* 66 (2008), 196.

14) Percival Pollard, “The Unlikely Awakening of a Married Woman,” *The Awakening*. Ed. M. Culley(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179-80.

15) Suzanne Wolkenfeld, “Edna’s Suicide: The Problem of the One and the Many,”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45.

로버트와의 낭만적 사랑이 에드나의 각성에 촉매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도 십대 때의 열정의 연장선에 놓인 것에 불과했다. 이는 로버트와 떨어져 있을수록 오히려 그녀의 상상력이 더 자극되어 그와의 사랑에 대한 열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에드나의 모습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즉 로버트와의 낭만적 사랑을 통한 그녀의 각성은, 결국 어린 시절 남몰래 품었던 사랑이 지닌 한계를 여전히 되풀이해 보일 뿐이다.<sup>16)</sup> 이러한 환상은 곧 에드나가 거부했던 관습의 틀을 로버트는 무시해버리지 못할 때 무참히 깨져버린다. 로버트는 에드나와의 관계의 진전을 두려워해 멕시코로 홀연히 떠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를 또 다른 결혼으로서 소유하려 한다. 정신과 육체가 결합된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었지만 에드나가 절대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마저 일차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상적 인물로 부풀려 재해석하고 자기만족에 빠진다는 것은 위험한 자기애의 표출이며,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심리적 좌절을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로버트와는 달리 아로빈((Alcée Arobin)은 육체적으로 각성한 에드나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다. 아로빈과의 관계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에드나가 처음으로 탐색한 관능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사랑 없이도 육체적으로 탐하는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과거의 에드나였다면 쉽게 물리쳤을 아로빈의 뻔뻔스러운 눈빛은 이제 갓 변모를 시작한 그녀의 내부에 새로이 깨어나고 있는 감각을 끌어당기는 강한 장치가 된다(79). 비록 에드나 본인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타인으로부터는 지탄을 받을만한 이 관계에 대해 에드나는 더 이상

16) Lahiri,, "Not a vanquished rebel but a successful explorer of newer realms: A study of Edna Pontellier in Chopin's *The Awakening*," 68.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각성 후 그녀의 감각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아로빈과의 관계 유지는 자신이 어디까지 육체적인 탐닉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이 경박한 삶을 살아가는 아로빈에게 에드나는 애초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여인이었다.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아로빈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항상 에드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다.<sup>17)</sup> 에드나는 아로빈과의 육체적 관계를 이어갈 때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조바심을 내거나 괴로워하거나 감정적이 되지 않는다. 아로빈은 그녀에게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아로빈이 곁에 있을 때에도 에드나는 항상 로버트나 라이즈 양 같은 다른 인물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화되고 수동적인 인물로 전락된 아로빈과는 달리, 에드나는 당시 사회의 남성의 독점적 특성이라고 치부되던 일종의 위엄을 지닌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왕”(84)과 같은 자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에드나의 에로스적 본능은 크게 어린 시절의 낭만적 환상과,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모성적 존재에 대한 잠재적 갈망과 탐색 그리고 로버트나 아로빈 등의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화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 에드나는 에로스의 가장 근원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자기’ 즉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사랑에 명백히 눈을 뜨게 된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감지하고 그 불만을 설움에 반한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녀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는 그 억압은 여성의 역할 범위를 가정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사회 관습과 통념, 주체성 없는 여성을 생산해내는 사회화, 남성에게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내재화시키는 가부장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17) Catherine Mainland, “Chopin’s Bildungsroman: Male Role Models in *The Awakening*,” *Mississippi Quarterly* 64 (2011), 81.

적 요구에 비해 에드나는 애초에 그리 모성애가 강한 여인이 아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폰텔리에 부인은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번 여름에는 유독 모성애가 강한 부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귀한 아이가 행여 다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며 늘 모성의 날개를 퍼덕였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떠받들고 남편을 숭배했으며, 한 개인으로서 그들 자신을 지우고 구원의 천사로 거듭나 자기 몸에 날개를 돋게 하는 것을 신성한 특권으로 여겼다.

In short, Mrs. Pontellier was not a mother-woman. The mother-women seemed to prevail that summer at Grand Isle. It was easy to know them, fluttering about with extended, protecting wings when any harm, real or imaginary, threatened their precious brood. They were women who idolized their children, worshiped their husbands, and esteemed it a holy privilege to efface themselves as individuals and grow wings as ministering angels. (9)

다른 귀부인들이 아이들과 남편의 그늘 아래 자아 개념을 묻은 채 자녀 양육을 자아 성취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반면, 에드나는 아이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객체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에드나는 일찍이 라티놀 부인과의 대화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비본질적인 부분 심지어 목숨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도 가장 본질적인 자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46).

본질적인 자유를 위해 사회적 억압에 저항했던 에드나는 그 방편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에로스적 본능을 그림을 그리는 예술 행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에드나가 새로 얻게 된 자유로운 자아를 표현함으로써 자율적인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로소 에드나는 아내나 어머니라는 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기쁨은 다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

을 정도로 가슴 벅찬 희열이다. 그녀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주체적인 자아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은 소설 후반부 로버트에게 하는 말에서 잘 드러나 있다.

“당신은 정말, 정말 어리석은 남자군요. 폰텔리에 씨가 나를 놓아줄 꿈을 꾸며 시간을 그토록 허비하다니요! 나는 더 이상 폰텔리에 씨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나 자신을 바칠 거예요. 만약 폰텔리에 씨가 ‘자, 로버트, 에드나를 당신에게 줄 테니 행복하게 살게. 에드나는 이제 당신 거야.’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들 두 사람을 보고 배꼽을 잡으며 웃을 거예요.”

“You have been a very, very foolish boy, wasting your time dreaming of impossible things when you speak of Mr. Pontellier setting me free! I am no longer one of Mr. Pontellier’s possessions to dispose of or not. I give myself where I choose. If he were to say, ‘Here, Robert, take her and be happy; she is yours,’ I should laugh at you both.” (102)

외로움이 곧 예술가를 창조자로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노래한 휘트먼의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의 주인공처럼,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잠들기 전 에드나는 마치 자신의 자립을 다짐이라도 하려는 듯이 에머슨의 책을 밤늦도록 읽곤 했다(70). 각성 이전에 스스로 가두어진 삶을 선택했던 에드나가 이제 온전한 삶의 보존에 대한 에로스적 본능이 깨어나면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그녀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 관습의 높은 장벽 때문에 그러한 자기표현이 예술로 승화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수단을 찾아낸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II

에드나의 타나토스 즉 죽음의 본능을 재촉한 원인은 무엇보다 19세기 루이지애나 크레올 사회라는 구조적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성』의 작가인 케이트 쇼팽(Kate Chopin)이 당시 사회를 꿰뚫어보던 시선인 동시에 푸코(Michel Foucault)가 이야기하는 감옥의 또 하나의 양태인 가정이라는 억압적 장치에 해당되기도 한다.

쇼팽을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당시의 여권주의자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일찍 아버지를 여윈 후 강하고 독립적인 미망인들인 증조모와 조모,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고, 새이크리드 하트 아카데미(Sacred Heart Academy)의 지적인 수녀들이 그녀의 역할모델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sup>18)</sup> 19세기 여성을 규제하던 빅토리안 가치체계에 대해 쇼팽이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쉽게 가능해진다. 특히 결혼 이후 그녀가 보여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일상적이지 않은’ 행보는 눈여겨볼만 하다. 쇼팽은 자신처럼 프랑스로 가톨릭교도였던 오스카 쇼팽(Oscar Chopin)과 유럽으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음주와 흡연, 혼자만의 산책 등 비 관습적인 돌출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말라리아로 남편을 잃고 남은 여섯 명의 자녀양육을 혼자 책임지게 되었을 때에도 재혼이라는 비교적 쉬운 선택 대신에<sup>19)</sup> 고향인 세인트 루이스에서 살롱을 열어 저널리스트, 문인들과 교류하며 독립적인 직업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 에밀리 토쓰(Emily Toth)의 지적대로 쇼팽은 또 한번의 결혼생활보다는 ‘작가로서의 고독과 자유’,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관조하고 홀로서기’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sup>20)</sup> 19세기

18) Emily Toth, “A New Biographical Approach,”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113-19.

19) Ibid., 119. 실제로 Chopin은 당시 *St. Louis Post Dispatch*의 편집자를 포함한 다수의 구혼자들이 있었다.

20) Ibid.

의 미국 신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렇다면 『각성』의 에드나가 그녀를 창조해낸 쇼펜의 완벽한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쇼펜의 뉴올리언즈에서의 실제 삶은 임신과 출산의 연속이었지만 관습적인 모성을 보여주는 라티놀 부인이 아니라 각성을 통해 전통적인 모성을 거부하는 에드나가 그녀의 소설 속 중심인물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결국 에드나가 경험하는 고민과 한계는 19세기 말 미국사회를 살아가는 신여성의 딜레마, 즉 “겉으로는 순용하지만 내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14)의 양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타나토스의 환원적 형태인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은 작가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굴레에 대한 암묵적인 반항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 에드나의 모습은 매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묘사한 “새들처럼 초롱에 갇힌” 19세기 빅토리아조 여성들의 모습과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에드나의 결혼반지이다.<sup>21)</sup> 결혼반지는 잠시 빼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남편이 건네주면 언제든 다시 손가락에 끼고 자신의 의무를 되새김질 받도록 하는 강력한 구속 장치라 할 수 있다. 에드나는 또한 레브룬 부인(Madame Lebrun)이 기르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앵무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데”(3) 마찬가지로 에드나를 둘러싼 사회도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에드나와 그녀를 둘러싼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갈등을 통해 에드나는 “인간으로서 우주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깨닫고”(17) 자아를 존립시킬 수 있는 묘책을 필사적으로 찾아보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좌절시키게 되는 사람은

21) Sharmita Lahiri, “Not a vanquished rebel but a successful explorer of newer realms: A study of Edna Pontellier in Chopin’s *The Awakening*,” 62.

에드나의 남편인 레온스이다. 금융업자인 레온스는 외양적으로는 부유하고 이상적인 남편이지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확실히 구분한 채 물질적인 성공과 체면만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기도 하다. 심지어 그는 아내인 에드나마져 자신의 값비싼 소유물(17)이며 사회적 성공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결국 사랑의 뜨거운 열정은 없었으나 그로 인해 극단적인 파국도 없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선택한 레온스와의 결혼은 오히려 에드나의 타나토스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만다.

남편과 가정을 벗어나 뉴 올리언즈 크레올 사회 전체를 보아도, 당시의 사회가 암묵적으로 상정해놓은 두 가지 유형의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예술가로서의 여성이 전부였다. 에드나가 이러한 여성상 모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비극적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강압적인 타협안들은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라티놀 부인이 말한 것처럼 크레올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며(26), 그녀에게 아이들에 대한 의무는 “맹목적으로 떠맡고 있기는 하지만 운명적으로 그녀에게는 맞지 않는다”(25) 일이었다. 그렇다고 라이즈 양처럼 이웃으로부터 멸시받으며 고립된 삶을 살아나갈 자신도 없었다.

에드나에게 영혼의 각성이 가져온 첫 변화는 사회 관념과 그로 인한 억압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자기애와 결합된 필연적인 타나토스의 노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1890년대 미국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들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특히 당시 빅토리안 도덕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적 청교도주의에 대해 저항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다윈설에서 촉발된 성경에 대한 비판 등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고 있었다. 동시에 과도기적 시기의 양상으로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혼 여성은 남편의 합법적 소유물로 여겨졌고 여성의 모든 재산은 결혼 후 남편에게 귀속되었으며 특히 이혼한 이

후라도 자녀양육권은 남편들만의 독점적 권리로 남겨져 있었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된 루이지애나는 특히 가톨릭 전통을 고수하는 매우 보수적인 곳이었다.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었고, 소송을 하거나, 사무실을 열거나, 기부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이혼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혼은 곧 수치스러운 행위로 치부되었다. 빅토리안 도덕 체계가 요구하는 기혼 여성의 본분은 집 안팎에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고, 어머니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최상의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 관습 체제 안에서 에드나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한 말은 매우 무례하며 불경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욱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전에도 자신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지, 그때마다 자신이 남편의 명령에 순종했었는지를 생각했다. 물론 그녀는 순종했다. 기억이 선명했다. 하지만 어째서 또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

“진 여기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다신 제게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말아요 그런 명령에는 대답하지 않겠어요.”

She could not at that moment have done other than denied and resisted. She wondered if her husband had ever spoken to her like that before, and if she had submitted to his command. Of course she had; she remembered that she had. But she could not realize why or how she should have yielded, feeling as she then did.

“I mean to stay out here. I don't wish to go in, and I don't intend to. Don't speak to me like that again; I shall not answer you.” (31)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당연시하고 이를 내면화한 반면에 각성 후의 에드나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그의 동의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일화들은 온전한 독립을 위한 그녀의 치절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을 제쳐두고 산책을 나갔으며, 남편의 부재중에 저녁 모임을 주최하였다.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고, 모임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당시의 에티켓과 불문율도 의도적으로 깨뜨린 행동들이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허락 없이 자신이 독립할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자신의 독립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을 만한 위험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할 때조차 자신의 물건과 남편의 물건을 철저히 구별하였던 것이다.

아로빈과 교제하게 되면서 에드나의 타나토스적인 충동은 더욱 과감해진다. 당시 관습은 여성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친척이나, 약혼자, 남편 혹은 샤프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로빈과 단 둘이 경마장이라는 공공의 장소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남편이 부재한 자신의 집에 그가 드나들 수 있게 허락해 준다. 당시 젊은 기혼 여성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도 추파를 던지는 여자로 치부되었고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이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에드나의 자기가 그녀로 하여금 주체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과 억압 하나하나를 의문시하고 저항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비록 육체의 소멸, 무기물로의 환원으로 수렴되는 과정, 에로스적인 본능이 궁극적인 타나토스적 본능으로 귀결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의무와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걸음 한걸음이 한 개인으로서 에드나의 존재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에드나는 자신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삶의 저변을 흐르는 흐름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를 초대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평판에 따라’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Every step which she took toward relieving herself from obligations added to her strength and expansion as an individual. She began to look with her own eyes; to see and to apprehend the deeper undercurrents of life. No longer was she content to “feed upon opinion” when her own soul had invited her. (89)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에드나가 수영복을 벗어 던지고 나체로 수영을 하는 장면은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당시 여성의 복장 규정은 매우 엄격해서 상황마다 입어야 할 복장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할 때, 손님을 응접할 때, 마차로 이동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저녁 식사할 때, 해변에서 산책할 때, 수영할 때 여자가 갖추어야 할 복장이 정해져 있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복장 규정이 명확했고, 당시 여성들은 이 모든 규정을 당연시 하며 준수했다. 따라서 수영복을 벗어버리고 바다라는 대자연 앞에 나체로 선 에드나의 모습에서 모든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녀의 단호한 결의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에드나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샌드라 길버트(Sandra E. Gilbert)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재탄생 과정으로 보고 있다.<sup>22)</sup> 미의 여신은 스스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였던 것이다. 길버트에 의하면 에드나는 각성 후 여신으로 재탄생하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반을 둔 전근

22) Sandra M. Gilbert, “The Second Coming of Aphrodite,”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76.

대적 세계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본질을 펼칠 수 있는 여성 중심의 근대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는 양립할 수 없었으며, 각성 후 미의 여신으로 초월적 존재가 된 에드나의 세속적인 운명은 결국 죽음으로 매듭짓게 된다. 에드나의 에로스적 본능은 그녀를 아프로디테와 같은 존재로 재탄생하게 했지만 결국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그녀로 하여금 그 사랑을 죽음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에드나의 각성을 사회 관습에 의해 부여된 여성성과 자연에 의해 부여된 여성성 사이의 긴장 구도로 이해한 엘리자베스 폭스 제노비즈(Elizabeth Fox-Genovese) 역시 이러한 역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sup>23)</sup>

에드나와 달리 라티놀 부인과 라이즈 양은 사회에 의해 규정된 그들의 역할을 내면화한 전형적인 인물들이며 이에 대해 샌드라 리 바트키(Sandra Lee Bartky)는 사회적 억압의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성인물들은 억압에 대해 운명, 죄책감, 혹은 노이로제로 제각각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sup>24)</sup> 예를 들어 라이즈 양의 경우,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독립적이고 고독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라티놀 부인보다는 덜 통제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녀가 사회에 수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뿐이다. 남과는 다른 그녀의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결국 라티놀 부인과 라이즈 양은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고자 하는 강한 에로스적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기에 굳이 삶을 종식시켜야 하는 타나토스적인 강한 욕구도 발현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3) E. Fox-Genovese, "Progression and Regression in Edna Pontellier,"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57-59.

24) Zoila Clark, "The Bird that Came out of the Cage: A Foucauldian Feminist Approach to Kate Chopin's *The Awakening*,"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2 (2008), 339.

푸코(Michel Paul Foucault)는 몸과 행동가짐을 규제하는 것이 의식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빅토리아 시대와 크레올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마치 현대사회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사진 찍히는 모델들처럼, 바라보는 주체가 아니라 ‘바라보아지는’ 객체였다.<sup>25)</sup> 당시의 여성의복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였던 단단히 조여진 코르셋은 일종의 ‘새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sup>26)</sup> 남편의 부를 과시하거나 혹은 그런 남편을 구해보려고 코르셋까지 차려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여성들을 빗대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위떼’라고 신랄하게 풍자한 우스꽝스러운 만화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구들이 사실 여성들을 고문하는 도구이자 죽음의 상징에 불과했다.<sup>27)</sup> 에드나가 자신의 강한 자기에와 결부된 타나토스적 열망 곧 육체적 죽음을 구현하려 함에 있어 이러한 온갖 신체적 구속 장치들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도 궁극적으로 또 하나의 대리모라 할 수 있는 바다 앞에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용기 있게 내보이는 것만이 그 유일한 수단임을 무의식적으로나마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체에 대한 구속과 함께 푸코가 주목했던 것은, 제도화된 억압의 시스템 즉, 다양한 형태의 예측이 서로 맞물리는 시스템으로서의 억압이다.<sup>28)</sup>

25) Ibid., 341.

26) 실제로 1890년대 이후로 이에 대항하는 이른바 신여성의 의복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이미지는 미국 화가인 찰스 데이나 깁슨(Charles Dana Gibson)에 의해 창조된 만화 속 여성인물이었다. 이른바 ‘깁슨걸’이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아름답고 경쟁적이며 자유로운 신여성의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코르셋을 입은 구세대의 여성이었으며 찰스 깁슨이라는 남성에게 의해 창조된 일종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7) 여성을 성적 대상화의 시각적 희생물로 전락시킨 것은 19세기 미국과 영국사회의 일반적 풍조였다. 이른바 “호텐토트의 비너스”(The Hottentot Venus)로 알려진 한 사건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시각적 호기심의 대상이자 하나의 소유물로 전락해 버린 당시 여성들의 모순적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신문수, 『타자의 초상』(서울: 집문당), 232 재인용.

28)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79).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서

이러한 권력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개인들 내부의 기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푸코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 스스로의 편향적 지식이 역설적으로 자신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은 이러한 지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즉 해부학적인 성 차이가 역사적 구성체가 아니라 타고난 운명처럼 필연적인 요소이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지성’과 ‘모성’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 에드나가 기어이 이사를 감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집에서는 가족과 하인들의 시선 이외에 무엇보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려 하는 자기 자신과도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함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적 감시 혹은 내면화된 억압은 숙녀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그녀의 학습된 규율의 결과물이다. 푸코의 이론을 빌리자면 당시의 크레올 사회에서는 여성 자신이 스스로의 판옵티콘이 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셈이며, 무엇보다 에드나 자신의 타나토스적 갈망을 극대화시키는 극적 동기가 되고 있다. 로버트와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또 다른 낭만적 환상이 제거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된 에드나는 자신을 속박하는 내적, 외적 감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서서히 물 위로 내려앉는 날개 부러진 새가 되어버린다. 새로이 발견한 자유에 대한 자신감과 지나친 희열로 인해 날개를 태워 추락해버린 이카루스와는 달리, 에드나는 불완전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기도 한 자신의 날개를 이용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스스로 사라지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sup>29)</sup>

버틀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알리스 피어솔 스미스(Alys W. Pearsall Smith)는 1894년에 쓴 『딸들로부터의 답

---

을: 나남출판사, 1994), 135-228.

29) Clark, “The Bird that Came out of the Cage: A Foucauldian Feminist Approach to Kate Chopin’s *The Awakening*,” 345.

장』(*A Reply from the Daughters*)<sup>30)</sup>에서 비록 당시의 모든 여성들이 가정 이외의 공적인 삶에 관심이 있어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이기심으로 똥똥 뭉친 괴물’로 간주될까 두려워 기꺼이 힘든 싸움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낭비하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31)</sup> 그녀는 또한 여성의 자기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드나가 말한 본질적, 비본질적 구분을 대신해, ‘타인만을 위한 일방적 자기희생’(self-sacrifice to)과 ‘자신과 타인을 위한 포용적 자기희생’(self-sacrifice for)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공동체에게 전자의 자기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후자의 자기희생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결국 관련된 이들에 대한 모든 존경심과 애정을 박탈해버리고 그 관계마저 파괴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에드나는 용기 있게 후자의 자기희생을 선택한다. 그녀 자신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다. 바다로 헤엄쳐 나감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육신을 죽여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타나토스로 변모된 궁극적인 에로스의 완성을 추구한다.

쇼펜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말이었을 에드나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한 배경에 대해 바바라 이웰(Barbara C. Ewell)과 파멜라 멘케(Pamela Glenn Menke)는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sup>32)</sup> 작품이 발간되기 몇 년 전인 1893년에 루이지애나주를 실제로 강타했던 ‘시월 대 폭풍’(Great October Storm)이 에드나의 타나

30) 스미스의 이 에세이는 크래컨솔프(B. A. Crackanthorpe)와 매리 젠(Lady Mary Jeune)이 각각 *The Nineteenth Century* 와 *The Fortnightly Review* 에서 ‘딸들의 반란’(The Revolt of the Daughters)이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발표한 두 에세이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에세이는 1890년대의 신 여성 문제를 화두로 다루고 있다. William A. Davis, “Female Self-Sacrifice in Kate Chopin’s *The Awakening*: Conflict and Context,” *Notes & Queries* 58 (2011), 563-67.

31) *Ibid.*, 566.

32) Barbara C. Ewell, & Pamela Glenn Menke, ““The Awakening” and the Great October Storm of 1893,” *Southern Literary Journal* 42 (2010), 1-10.

토스적 욕망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었으리라는 해석이다.<sup>33)</sup> 쇼펜은 1870년 결혼 이후 잠시 루이지애나에 거주하기도 했지만 1883년에 남편의 죽음을 맞고 다시 고향인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 영구 정착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루이지애나는 쇼펜의 상상적 삶 속에서 여전한 중심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 겨울 루이지애나를 짧게 방문한 후, 쇼펜은 8주 동안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무려 여덟 편이나 작성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옛집을 다시 찾게 된 경험이 문학적 영감을 고취시킨 것이다.

쇼펜이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93년 그랜드 아일랜드와 세니에 섬을 강타한 대 폭풍은 이천 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들을 양산했고 십오미터가 넘는 파도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집어삼키고 초토화시켰다. 기억으로 가득 찬 장소를 상실한 데서 오는 허무함,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처참한 폐허는 쇼펜에게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sup>34)</sup> 타나토스의 본능이 마치 물리적 자연현상인 대 폭풍으로 형상화되어 영감을 준 것처럼, 이후 쇼펜은 상실의 힘,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성』은 장소상실에 관한 이야기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아와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개인의 에로스화 타나토스에 대한 쇼펜의 상상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에드나의 치열한 삶의 양태는 사회적 제약에 대항하는 개인의 열정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쓰가 관찰한 바와 같이 “잃어버린 삶의 방식에 대한 비가”이기도 한 것이다.<sup>35)</sup> 등장인물들을 모두 대 폭풍이 임박한 지역에 배치해 놓음으로써<sup>36)</sup> 쇼펜은 에드나의 각성에 미치는 통렬한 타나

33) Ibid., 2.

34) Ibid., 5. 쇼펜은 실제로 대 폭풍이 루이지애나를 강타하기 이전에 자신이 휴가를 즐겼던 크란츠 호텔(Krantz Hotel)이나 즐겨 타던 작은 기선인 조우 웨버(Joe Webre)호가 폭풍이 지나간 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5) Ibid., 6.

36) 소설 속에서 하이캠프 부인(Mrs. Highcamp)이 1892년 2월 8일 설립된 뉴올리언스

토스의 작용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 또한 바다의 강력한 힘과 결합된 에드나의 마지막 수영은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려는 에드나의 의지가 크레올 전통사회에 대한 한 여성의 커다란 도전, 곧 모든 것을 바꾸어버릴 에드나 자신의 드센 폭풍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랜드 아일랜드에서의 여름의 온기, 다정한 로버트와 아름다운 라티놀 부인, 라이즈 양의 피아노 선율은 에드나로 하여금 자신을 질식시키는 내적 억압을 해제하도록 이끌었지만 뉴 올리언즈로 돌아온 이후 에드나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오는 혼란과 불안에 내내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실 변화된 것은 그녀의 뉴 올리언즈 집이 아니라 각성의 순간을 지난 그녀 자신이며, 낯설고 새로운 목소리가 자신을 깨웠던 그랜드 아일랜드에서의 시간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자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강렬한 타나토스의 본능으로 수렴되지 않을 에로스의 본능은 그랜드 아일랜드에서의 짧은 여름휴가와 같이 한낱 덧없는 꿈에 불과하며 에드나는 자신이 영원히 그랜드 아일랜드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음을 통렬히 인식하고 있다. 로버트에게도 에드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19세기 크레올 사회와 작별하고 이 모든 꿈이 시작된 그랜드 아일랜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곳은 이미 파괴되고 죽음의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드나가 그랜드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 곳은 더 이상 여름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장소도 아니었다. 바다로 나가는 수영에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기억도 그녀의 첫 번째 집이었던 켄터키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상징성을 지닌다.<sup>37)</sup> 결국 폭풍은 남편과 자녀에 헌신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만드는 관습의 테두리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릴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자연의 힘이며, 각성의 과정을 통해 에드나는 더 이상

---

민담학회에 참석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각성』의 배경은 1892년 7월 즈음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7) Ibid.,9.

그럴싸한 환상 속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다. 즉 본연의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에로스적인 본능이 자연재해와 대응이 되는 파괴와 죽음의 타나토스의 본능으로 융합되고 변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 III

에드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껏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셀 휴스턴(Sean Heuston)은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속에서 설사 죽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에드나가 이 욕구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이 아니라는 해석까지 내놓았다.<sup>38)</sup> 그는 소설의 마지막 문단을 생의 마지막 순간, 파노라마처럼 스치는 삶의 기억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에드나가 떠올린 것들이 실상 시각적 이미지들이라기보다는 온갖 소리와 갖가지 향기들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비단 휴스턴뿐만이 아니라 이 소설에 대해 논평하는 거의 모든 비평가들이 결말 부분에 대해 언급을 시도했다. 볼켄펠트는 에드나의 자살을 둘러싼 이제까지의 논쟁을 부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 중간 입장으로 크게 나눈 바 있는데,<sup>39)</sup> 에드나의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다니얼 란킨(Daniel S. Rankin), 조지 스팅글러(George M. Spangler), 신시아 그리핀 울프(Cynthia Griffin Wolf) 등은 에드나의 자살이 성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거나, 이제까지 그녀가 보여준 발전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동 또는 심리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에드나의 타나토스적

38) Sean Heuston, "Chopin's *The Awakening*," 226.

39) Wolkenfeld, "Edna's Suicide: The Problem of the One and the Many," 242-43.

충동은 타인을 배제한 이기적이고 저급한 단계의 에로스적 본능, 자기 성애의 표출이며 일종의 정신장애에 해당된다.

반면 샴미타 라히리(Sharmita Lahiri)는 에드나가 바다를 선택한 것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과 현실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에 대한 에드나의 대담하면서도 자발적인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0)</sup> 에드나가 처음으로 수영을 한 8월 28일은 공교롭게도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와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인 베르테르(Werther)의 생일과 일치하는데, 쇼펜은 결국 죽음을 선택한 베르테르보다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으나” 결국 살아남은 괴테처럼, 에드나의 자살이 단순한 충동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고도의 에로스적 본능을 지키기 위한 타나토스의 의도적 발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독자의 탄생은 작가의 죽음으로 보답받는다.”<sup>41)</sup>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말처럼 『각성』의 열린 결말에 대한 해석은 각각의 독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19세기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허용된 지 극히 한정된 삶의 양식들을 고려해 볼 때 타나토스, 삶의 종식은 여성이 자 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온 에드나에게는 당연한 자기애의 결말이었다.

에드나의 자살을 능동적인 자기애의 구현이라고 본 퍼 세이어스테드(Per Seyersted)나 케네스 이블(Kenneth Eble), 도널드 린지(Donald A. Ringe), 조지 암즈(George Arms) 등도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내면의 요구에 따른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는 데에 동의한다.<sup>42)</sup> 그녀의 자살은 그녀의 본질과 현실적인 한계를 명확히 깨달은 후 영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선택한 고귀한 행동이었거나, 그녀의 힘과 고귀함,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40) Lahiri, “Not a vanquished rebel but a successful explorer of newer realms: A study of Edna Pontellier in Chopin’s *The Awakening*,” 69.

41) Robert E. Kohn, “Edna Pontellier Float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43 (2010), 140.

42) Wolkenfeld, “Edna’s Suicide: The Problem of the One and the Many,” 242.

영웅적인 행동, 혹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깨달음에서 항복 없는 패배를 택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추어진다. 즉 에드나의 자기에, 에로스적 본능이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타나토스적 본능과 융합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에드나는 19세기의 미국 크레올 사회를 능동적으로 살아나가면서 숙명적인 고독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위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넘나들다 그 마지막 해결책으로 자기파괴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리 에드워즈(Lee R. Edwards)는 에드나가 두려워한 고독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드나가 로버트와 이별한 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로버트와의 결혼을 통한 사회와의 재결합도, 아로빈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육체적인 결합도 아니었음을 자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43)</sup> 결국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금욕을 전제한 고립적인 생활이었는데, 그것은 라이즈 양의 삶을 통해서 이미 간접 경험했듯이 에드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묶는 인간관계,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깨닫고 그 덫을 탈출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헌신적인 모성을 신성시하는 당시의 크레올 사회에서는 죽음 곧 타나토스로의 회귀만이 여성, 어머니로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에로스의 상태로 정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작가 쇼펜이 생각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선택 즉, 자기 인식과 자아 성장이 세상과 조화되는 삶 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깨닫고 타인과의 교류를 모두 단절한 삶 중에서 에드나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 볼켄펠트와는 달리 쇼월터는, 에드나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선택이 매우 자율적이며 주체

43) Lee R. Edwards, "Sexuality, Maternity, and Selfhood,"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82-84.

적인 행동이었다는 보다 긍정적 시선을 유지한다.<sup>44)</sup> 즉, 라티놀 부인과 같은 삶을 택하면 지금까지의 반항을 포기하고 결혼 생활에 안착하여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라이즈 양과 같은 삶을 택하면 아름다움과, 젊음, 남편, 아이까지도 모두 잃게 되겠지만 그녀의 예술과 자존심만은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에드나는 이 두 가지 삶 모두를 거부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삶 중 어떤 삶의 양태를 선택했더라도 에드나는 자궁심을 지닌 채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티놀 부인의 삶과 같은 결말은 19세기 소설의 전형적인 결말을 따르는 것이며, 라이즈 양과 같은 삶은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미국 뉴 올리언즈의 신여성의 삶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쇼펜은 이 두 여성 유형이 대표하는 어떠한 문학적 전통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살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쇼월터가 이야기한대로 작가의 그러한 선택은 오히려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5)</sup> 당시에 자살이라는 장치는 19세기 소설 전통에서 사회의 도덕률을 거부한 등장인물들에게 일종의 권선징악의 수단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고 1890년대 독자였다면 에드나의 자살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단순한 대가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해진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에드나의 죽음, 타나토스의 구현이야말로 19세기 미국사회의 허위와 가식을 조롱하며 끝까지 주체적 자아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에드나의 에로스적 본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현현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근래에

44) Elaine Showalter, "Chopin and American Women Writers,"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311-20.

45) *Ibid.*, 317.

와서야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 IV

앙카 파블레스쿠(Anca Parvulescu)의 말처럼, 에드나가 정말 죽음에 이르렀는지 무슨 의도로 죽으려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녀가 기꺼이 죽으려 했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46)</sup> 적어도 포기할 수 없는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에드나는 기꺼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더 큰 삶을 살고 싶어 했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사회 관습으로 강요된 가정은 에드나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설령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실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울가미에 불과할 뿐이다. 라이즈 양은 가장 귀중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타나토스로 수렴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에드나의 단단한 결의를 먼저 감지한다.

“예를 들면 오늘 헤어질 때 라이즈 양은 내 팔을 잡더니 어깨뼈를 만지며 내 날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인습과 편견의 평원 위로 날아오르려는 새는 튼튼한 날개를 지녀야 해요 허약한 새들이 상처를 받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라고요”

“Well, for instance, when I left her today, she put her arms around me and felt my shoulder blades, to see if my wings were strong, she said. ‘The bird that would soar above the level plain of tradition and prejudice must have strong wings. It is a sad spectacle to see the weaklings bruised, exhausted, fluttering back to earth.’” (79)

---

46) Kohn, “Edna Pontellier Float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141.

노인인 맨델레트 박사(Dr. Mandelet)는 소설의 마지막에 처한 에드나의 딜레마의 양면을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있는 인물이다. 사회가 “모성에 대한 인위적인 찬양이라는 미끼”(105)를 사용해서 그녀들을 가정이라는 영역에 영원히 가둬두려 한다는 함정을 그는 오랜 삶의 지혜로 어렵듯이 알아채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되기 이전이라면 에드나는 자신만의 삶, 자신을 향한 에로스의 방식을 육체적 생명과 공존시키며 탐색해갈 수 있었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버렸다. 에드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는 올가미는 바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성이지만, 이 아이들마저 결국에는 에드나를 끊임없이 가두어 두려 하는 적대자들이었다. 라티놀 부인의 난산을 지켜본 것을 계기로 에드나는 자신을 제압해서 남은 생을 영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깨달았노라고 마지막이 읊조린다(108). 다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모성이라는 강한 속박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함으로써 에드나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로 한 것이다. 억압을 상징하는 마지막 옷가지조차 다 내던진 채 자신을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바다로 끝없이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단순한 부유층 부인의 일시적인 번덕이나 감정의 사치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에드나의 강한 자기에는 비록 육체적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로 동화되지는 않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곳곳이 지켜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19세기의 미국사회는, 빅토리아조의 가정의 천사라는 이상적 여성에 대한 윤리와 신생국을 이끌 후손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의무를 모성이라는 이름하에 당시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중적으로 덧씌우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틀 속에서도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에드나의 각성은 일면 하이데거의 실존적 문제와 당시 미국사회의 초월주의 사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에드나의 에로스적 본능은 어린시절의 낭만적 환상에서 시작되어 그 연장선에 놓여있는 로버트와의 관계나 아로빈과의 육체적 탐색, 일종의 대리모 서의 라티놀 부인과 라이즈 양에 대한 모성 갈망 등으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한 자기애의 추구는 궁극적으로는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화려한 루이지애나의 대저택으로 환원되는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각종 의복에 둘러싸인 자신의 갇힌 육체처럼, 거듭된 의사소통의 불능과 실패라는 허무한 결과만을 가져오고 말았다. 당시 에드나에게 남겨진 대안은, 어머니로서의 헌신적인 삶과 고립된 예술가로서의 삶뿐이었으나 이는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안들에 불과했다. 자신이 스스로의 판옵티콘이 되어 내면화된 억압을 기꺼이 받아들인 라티놀 부인이나 라이즈 양과는 달리 에드나는 타나토스적 본능을 앞세워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1893년 실제로 루이지애나를 뒤흔던 대 폭풍처럼, 바다로 나아가는 에드나의 강력한 의지 자체도 폭풍의 또 다른 변주이며, 과도기를 겪어가고 있던 당시 미국 사회에 도전하는 타나토스적인 본능인 동시에 그와 융합된 가장 맹렬한 에로스적 본능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 Works Cited

- 강규한. 「산업화의 진전과 자연훼손」.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신문수  
 엮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년. 84-85.
- 신문수. 『타자의 초상: 인종주의와 문학』. 집문당, 2009년. 232.
- Bellah, R. N.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Chametzky, Jules. “Edna and the ‘Woman Question’.”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21-22.
- Chopin, Kate. *The Awakening*.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 Clark, Zoila. “The Bird that Came out of the Cage: A Foucauldian Feminist  
 Approach to Kate Chopin’s *The Awakening*.”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2 (2008): 339.
- Culley, Margo. “Edna Pontellier: “A Solitary Soul”.”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47-51.
- Davis, William A. “Female Self-Sacrifice in Kate Chopin’s *The Awakening*:  
 Conflict and Context.” *Notes & Queries* 58 (2011): 566.
- Defrancis, Theresa. “Women-Writing-Women: Three American Responses to  
 the Woman Question.” Diss. Rhode Island U, 2005.
- Edwards, Lee R. “Sexuality, Maternity, and Selfhood.”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82-85.
- Ewell, Barbara C. & Menke, Pamela Glenn. “*The Awakening* and the Great  
 October Storm of 1893.” *Southern Literary Journal* 42 (2010): 2.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79.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  
 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사, 1994].
- Fox-Genovese, E. “Progression and Regression in Edna Pontellier.”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57-62.
- Franklin, Rosemary F. “Chopin’s *The Awakening*: A Semiotic Novel.”  
*PsyArt*(2011): 4.
- Gilbert. Sandra M. “The Second Coming of Aphrodite.”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71-81.

- Havener, Christa. "The "Lady in Black" in Chopin's *The Awakening*." *Explicator* 66 (2006): 196-97.
- Heuston, Sean. "Chopin's *The Awakening*." *Explicator* 64 (2006): 224-26.
- Kohn, Robert E. "Edna Pontellier Float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43 (2010): 140.
- Lahiri, Sharmita. "Not a Vanquished Rebel but a Successful Explorer of Newer Realms: A Study of Edna Pontellier in Chopin's *The Awakening*." *The IPU Journal of English Studies* (2011): 69.
- Leary, Lewis. "Kate Chopin and Walt Whitman."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17-20.
- Mainland, Catherine. "Chopin's Bildungsroman: Male Role Models in *The Awakening*." *Mississippi Quarterly* 64 (2011): 81.
- Olds, Mason. "Being, Courage, and Love." *Humanist* 67 (2007): 32.
- Pollard, Percival. "The Unlikely Awakening of a Married Woman."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179-80.
- Sentilles, R. M. "New Girls for the New (Twentieth) Century Melissa R. Klapper, Jewish Girls Coming of Age in America, 1860-1920." *Journal of Women's History* 21 (2009): 196-204.
- Showalter, Elaine. "Chopin and American Women Writers."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311-20.
- Toth, Emily. "A New Biographical Approach."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113.
- Wolkenfeld, Suzanne. "Edna's Suicide: The Problem of the One and the Many."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241-46.

■ 논문 투고일자: 2013. 04.20

■ 심사(수정)일자: 2013. 05.14

■ 게재 확정일자: 2013. 05.16

## Abstract

### **Eros and Thanatos in Chopin's *The Awakening***

Son Ju Y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dynamics of Eros (sexual instinct, the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and Thanatos (death instinct) work with each other in Chopin's *The Awakening*. In truth, Eros is not incompatible with Thanatos. Instead the highest self-love inevitably goes with the self-destruction (physical death) as we can see in *Tristan and Isold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merican society witnessed a very intens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Victorian moral values and the new awakening for women that mainly stemmed from both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nd American transcendentalism.

As for Edna, the heroine of *The Awakening*, everything which surrounds her, especially the 19th century Creole society in Louisiana rigorously prohibits her from realizing her real identity, her so-called essentials. The role assigned for her by society is nothing but that of a wife or a mother. At first, Edna repeatedly tries to overcome these social barriers through the salvation of the 'surrogate mothers' (Adele Ratignolle, Mlle. Reisz) or the 'perfect lover' (Robert Lebrun) which is destined to fail.

Gradually the 'home', the counterpart of Foucault's 'prison', is suffocating her to the extent that she cannot sustain herself as an integrated individual any more. Motherhood is one of the most unwilling duties imposed on her by society. She neither wants to be a woman-angel nor a woman-monster.

Like the great thunderstorm that hit all of Louisiana in 1893, the Thanatos in Edna finally induces her to take her own life. Her suicide should be regarded as not a defeat to her fate but a victory to achieve her true self which is the only worthwhile object of her highest Eros.

**Key Words**

Eros (삶의 본능, 자기 보존적 본능), Thanatos (죽음의 본능), American transcendentalism (미국적 초월주의), Creole society (크레올 사회), surrogate mother(대리모), Robert (로버트), Edna (에드나), Foucault (푸코), prison (감옥), woman-angel(천사로서의 여성), woman-monster(괴물로서의 여성), motherhood (모성), The Great Thunderstorm (대폭풍)